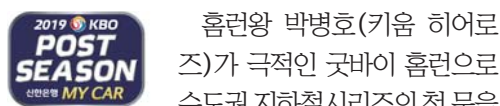


광주·전남 대표 선수들 잇단 승전보



박병호 9회 굿바이 홈런
키움 준PO 1차전 승리



홈런왕 박병호(키움 히어로즈)가 극적인 굿바이 홈런으로 수도권 지하철시리즈의 첫 문을 열었다.
키움은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막을 올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1차전에서 0-0으로 맞선 9회 나온 박병호의 끝내기 중월 홈런에 힘입어 LG 트윈스를 1-0으로 따돌렸다.
박병호는 LG 마무리 투수 고우석의 초구를 퍼올려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비거리 125m짜리 아이치를 그리고 명승부를 끝냈다.
양 팀의 2차전은 7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에릭 요키시(키움)와 차우찬(LG) 두 왼손 투수가 팀의 명운을 걸고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다.
필승 카드로 등장한 제이크 브리검(키움), 타일러 윌슨(LG) 두 팀의 에이스가 눈부신 역투로 준PO 1차전의 문을 화려하게 열었다.
브리검은 6%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2개씩만 허용하고 삼진 6개를 뽑아내며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윌슨도 8이닝 동안 안타를 8개나 맞고도 키움에 한 점도 안 주고 팽팽한 투수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
승부는 9회 갈렸다.
키움의 9회 먼저 마무리 오주원을 올리자 LG도 9회 말 박병호부터 시작하는 키움의 중심 타선을 막고자 고우석을 기용했다.
올 시즌 홈런 33개를 쳐 개인 통산 5번째로 홈런왕에 등극한 박병호가 고우석의 초구를 놓치지 않고 펜스 바깥으로 넘겨 팀에 귀중한 승리를 안겼다. /연합뉴스

광주FC 1부 직행 매직넘버 '2'
윌리안 결승골 1-0...선두 질주
윌리안의 시즌 8호 골을 앞세운 광주FC가 아산 무궁화를 제물로 3연승을 달성했다.
광주는 6일 이산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아산과의 경기에서 후반 19분 터진 윌리안의 득점으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19승10무3패가 돼 승점 67점이 된 광주는 역시 승리를 거둔 2위 부산 아이파크(승점 60점)와 승점차 '7'을 유지, 우승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광주는 남은 4경기에서 2승만 보려면 부산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부 리그로 승격한다.
광주는 펠리페-김주공을 투입으로 세우고, 윌리안과 하정요를 2선에 배치하는 공격적인 전술로 원정 승리를 노렸다. 수문장은 이진형이 맡았다.
양 팀은 전반 중반부터 공방전을 펼쳤으나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광주는 후반 들어 쉴 새 없이 공격을 시도했고 후반 19분 마침내 아산의 골문을 열었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윌리안이었다. 후반 19분 왼쪽 페널티지역에서 수비수 2명을 따돌린 뒤 오른쪽 슈팅을 날렸고 공은 그대로 아산의 오른쪽 골문을 꿰뚫었다.
아산은 거센 반격으로 동점 골을 노렸으나 광주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엔 역부족이었다. 경기는 광주의 1-0 승리로 끝났다. /최진화 기자

일병 김국영 100m '금' 신록 역도 2연속 3관왕
김덕현 멀리뛰기 4연패 안산 양궁 3관왕
김민오 MTB 4연패 박서진 해머던지기 3연패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가운데 광주·전남 대표 선수들이 잇단 메달 소식을 전했다.
광주는 이주미(국민체육진흥공단)가 자전거 여자일반부 3km개인추발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안산(광주체고 3년)이 양궁 3관왕에 올랐다. 전남도 신록(고흥고 2년)이 역도에서 3관왕 2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은 가운데 김민오(강진군청)가 자전거 남자일반부 마운틴바이크 4연패를 달성했다.

◇국가대표 메달 레이스
한국 간판 스피린더 김국영(국군체육부대)은 6일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2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종아리부상의 여파로 은메달에 그쳤던 그는 1년만에 다시 100m 왕좌를 되찾았다. 김국영은 200m와 400m계주에서



6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여자일반부 100m 결승 경기에서 광주 대표 김국영이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관왕에 도전한다. 모일환(조선대 2년)도 남대부 400m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배드민턴 세계랭킹 19위 안세영(광주체고 2년)도 유아연(광주체고 2년)과 호흡을 맞춰 개인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안산(광주체고 3년)은 양궁 여고부 60m에서 대회타이 기록(351점)을 세운 것을 비롯해 70m와 50m에서 우승하며 3관왕에 올랐다. 백수연(광주시체육회)은 평영 1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쥐

었다.
◇다관왕·연패 금지탑
도약 1인자 김덕현(광주시청)은 6일 멀리뛰기에서 7.72m로 우승, 대회 4연패를 기록했고 윤아현(광주시체육회)은 핀수영 표면800m 3연패를 달성했다.
역도에서는 박수빈(광주체고 3년)이 용상과 합체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
전남은 김민오의 대회 4연패를 비롯해 박서진(목포시청)도 해머던지기에서 59.10m로 우승하며 3연패를 달성했

다. 신록은 역도 남고부 61kg급에서 2연패를 하며 이 부문 최강자임을 재확인했다. 소프트테니스(정구)에서는 순천여고가 개인 단·복식을 모두 금빛으로 장식했고 단체전까지 전종목 석권을 노린다.
◇단체대진종목 순항
동강대가 야구 일반부에서 광주선수단에 8년만에 승리를 안긴 가운데 수피 아여고가 농구에서 강원 춘천여고를 82-79로 제압하고 1회전을 통과했다.
배구에서는 광주전자공고가 강원 속

초고에 3-2로, 광주체고가 전북 전주근영여고에 3-0으로 승리했다.
펜싱에서도 승전보가 이어졌다. 남고부에서는 풍암고가 플라레에서, 광주체고가 에페에서 각각 동메달을 확보했으며 남자일반부에서도 서구정이 에페에서, 호남대가 사브르에서 동메달을 확보했다.
전남체고 여고부 에페, 전남기술과학고 여고부 사브르, 전남체고 플라레도 동메달을 확보하고 금메달에 도전한다. /최진화 기자

광주도시철도공사 이정윤·이주연 '금빛 한판'

말아업어치기·잡기 기술 앞세워 전국체전 제패
여자일반부 종합우승 견인...내달 대표선발 준비

창단 7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유도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일군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팀의 금메달 주인공은 23살 동갑내기 이주연과 이정윤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니폼을 입은 이들은 실업 선수로서 첫 전국체전에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정윤은 지난 5일 KBS스포츠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체전 여자일반부 개인전 78kg이하급 결승에서 경남도청 박유진을 상대로 말아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이주연 역시 63kg이하급 결승에서 공서영(고창군청)을 꺾고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이정윤은 용인대 3, 4학년 때인 98회, 99회 금메달에 이어 3년 연속 전국체전 정상에 오르는 결실을 맺었다.
이정윤은 "무조건 일등한다는 생각으로 체전을 준비했다"면서 "준결승, 결승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금메달을 안긴 결승 한판승의 기술은 말아업어치기다. 이정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술로 하나의 깃만 잡고 업어치는 기술인데 결승에서도 한판승을 안겼다.
이정윤은 "결승에서 이겼을 때는 몰랐는데 상대인 박유진 선수가 어깨가 빠졌다고 들어서 걱정된다"고 말한 뒤 "11월에 대표선발전이 있는데 무조건 일등해서 도쿄에 가겠다"고 말했다.
동반 금메달의 주인공 이주연은 인천체고 3학년 때인 95회 체전 금메달 이후 5년 만에 금메달을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다. 한체대에서는 은메달만 4개를 기록했지만 실업팀에서 풀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었다.

이정윤은 "결승에서 이겼을 때는 몰랐는데 상대인 박유진 선수가 어깨가 빠졌다고 들어서 걱정된다"고 말한 뒤 "11월에 대표선발전이 있는데 무조건 일등해서 도쿄에 가겠다"고 말했다.
동반 금메달의 주인공 이주연은 인천체고 3학년 때인 95회 체전 금메달 이후 5년 만에 금메달을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다. 한체대에서는 은메달만 4개를 기록했지만 실업팀에서 풀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었다.



이정윤 이정윤

이주연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다"면서 "매 경기 다 힘들었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잘 풀렸다. 대전 운도 따라서 힘든 상대도 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중관리에 주력했고, 체중을 잘 빼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 시합도 잘 풀린 것 같다"며 "잡기가 주특기인데 정신을 차리고 하다 보니 상대보다 먼저 잡기 기술을 쓸 수 있었다. 대표선발전

도 잡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팀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로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국체전 종합우승은 창단 7년 만에 일군 쾌거다. 이정윤과 이주연이 금메달을, 김성연(70kg이하급)과 이혜경(48kg이하급)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

강유정·박다솔 "내년 도쿄올림픽 목표"

순천시청 여자유도팀 창단 첫 전국체전 금·은메달

한국 여자유도 국가대표 강유정과 박다솔(이상 23)이 지난 2017년 창단한 순천시청의 전국체전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강유정은 지난 5일 KBS스포츠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체전 여자일반부 개인전 48kg이하급 결승에서 최수희(서울성동구청)에 한판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다솔은 52kg이하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다솔은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보경(안산시청)에게 결승전에서 아쉽게 절반패로 금메달을 내줬다.
여수정보고학교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올해 고향팀인 순천시청에 등지를 둔 강유정은 무릎 부상의 부담을 떨쳐내고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유정은 "실업팀에서의 첫 체전인데 왼쪽 무릎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며 "원래 주특기가 무릎 꿇고 업어치기인데 부상 때문에 서서 했다. 힘들긴 했지만 연습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유정은 무릎이 좋지 않아 대회를 건너뛰면서 세계랭킹이 19위까지 내려간 상태. 올림픽 안정권인 세계랭킹 16위 안으로 다시 올라서야 한다.
강유정은 "다음 달 대표선발전이 중요하다"며 "올림픽을 목표로 부지런히 뛴다"고 다짐했다.
박다솔은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나폴리하계유니버시아드,



강유정 박다솔

2019자그레브 그랑프리유도대회에서 잇따라 은메달을 획득한 52kg이하급 대표선수다. 하지만 체중을 높여 52kg이하급에 참여한 정보경을 결승에서 만났고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에서 절반을 내줘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박다솔은 "보정 언니가 체중을 올려서 나오며 처음 대결했는데 아쉽게 졌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 대표선발전에서는 꼭 이겨, 제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진화 기자

“이겨서 기쁘다”
동강대 김지석 완투승
8년만의 득점 견인자

광주에 8년만의 전국체전 야구 일반부 승리를 안긴 동강대학교의 주인공은 왼손투수 김지석(1년)이다.
김지석은 제주선발과의 1회전에서 9이닝3실점(2자책)으로 완투승을 거두며 동강대의 4-3 승리를 견인했다.
김지석은 이날 최고 137km의 직구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던지며 제주 타자들을 요리했다. 7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았던 김지석은 8회말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3실점했지만 9회말 삼자범퇴로 제주선발 타자들을 틀어막고 1점차 짜릿한 승리를 안았다. 지난 2011년 92회 전국체전 1회전 통과 이후 야구 일반부에서 무득점을 기록했던 광주는 올해 240점을 확보했다.
김지석은 “이겨서 너무 기쁘다. 타자들이 초반에 점수를 내줘 편하게 던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자를 한명씩 잡자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석은 프로팀에 가지 못하고 동강대에 진학했지만 다시 내년을 노리고 있다. 그는 “내년에 잘 던져야 한다. 열심히 하다보면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